

HOLY HABIT MOVEMENT PART 2

7. 평안 - 가장 큰 선물

1. 요즘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무엇인가요?

- 세대별로 느끼는 불안 요인은 다음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❶ 10대 청소년

입시 경쟁과 높은 학업 기대치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왕따, SNS우울증: 카페인 우울증), 급변하는 AI시대에 진로 선택이 훨씬 더 어려워짐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정 내 갈등 등

❷ 20-30대 청년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및 경력을 쌓을 기회 박탈을 가속화하는 사회 현상, 이직에 대한 두려움, 소득 불평등과 빈부 격차, 결혼 문제, 직장 따돌림과 같은 관계 문제 등

❸ 40-60대 장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대책 마련, 일자리 상실 및 직장 내 입지 약화, 노화로 인한 건강 상실, 경제력 상실로 인한 가족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

❹ 70대 이상 노년

노후 대비 미비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가정 등 역할 상실과 정체성 혼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 이처럼 모든 세대는 각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서, 당대 최강국의 왕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조차 편안한 궁정에서 침을 누리다가도 이상한 하나의 꿈 때문에 한순간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2. 평안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제국을 발아래 두고 지배했으며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번민했습니다. 꿈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니 더 불안해했습니다.

- 다니엘은 이런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알려준 뒤 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덧붙입니다. 바로 평안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된다고 권면합니다(단4:27, 잠1:33).
- 또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어떤 상황과 위험 앞에서도 쉽게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될지 그 끝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끝을 알게 되고, 그래서 최후 승리를 아는 자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다가올 최후 승리의 날을 준비함으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 내 주변과 우리 사회에 평안을 잃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 우리 주변과 사회에서 평안을 잃은 약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❶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실직자, 취업난을 겪는 청장년, 경제적으로 궁핍한 한부모 가정, 빈곤 노인층, 노숙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 등

❷ 건강 문제 및 사회적 소외된 사람들

만성질환자, 말기 환자,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 사회적 기준(부양가족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등)에 충족되지 못하여 사회적 돌봄에서 소외된 노인과 장애인, 보호시설 아동 등

❸ 전쟁과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

전쟁 지역의 포로 및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가정학대/학교폭력 등 학대피해자 등

- 이와 같은 사람들은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는데, 그저 일부에 해당할 뿐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섬길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그들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며 돌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❶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섬김

구제와 지원: 생필품, 식료품,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역에 동참하거나 직접 전달
취업 및 자립 지원: 직업 교육, 멘토링, 일자리 연결하는 국가사업 및 민간지원을 소개

❷ 건강 문제 및 사회적 소외를 겪는 이들을 위한 섬김

방문 및 돌봄 사역: 병원, 요양원, 복지시설, 쉼터, 보호소에서 봉사, 농어촌 어르신 봉사 참여
정서적 영적 돌봄 사역: 치유상담센터 소개 및 교회 중보기도사역팀에게 기도제목 전달
공동체 활동: 지역사회 및 교회 행사 초청하여 고립된 삶에 연결고리 제공

❸ 전쟁과 폭력에 고통 당하는 이들을 위한 섬김

난민 지원 사역 후원, 가정 폭력 신고 및 돌봄센터 소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후원 및 동참, 상담센터 소개

-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섬길 때 평안을 잃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5.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도래할 끝을 준비하며 의를 행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이번 권을 마무리하기까지 내게 일어난 변화를 정리하여 적어 봅시다.

• 새롭게 깨달은 것:

• 내게 일어난 안팎의 변화:

• 이루고 싶은 소망:

1. 크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어떤 걱정이 들 수 있을까요?

- 편안한 궁정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느부갓네살도 꿈 하나로 인해 모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소유로 얻은 평안은 가짜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느부갓네살은 권력의 정점이자 재물이 넘쳤기 때문에 욕망으로 인한 불안함이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많아도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소유로 인해 좌지우지되지 않지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염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대하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누구를 믿고 신뢰해야 할지부터가 항상 걱정 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2. 모든 것을 가진 왕도 꿈 하나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전에 다니엘 2장에서 꿈에서 보았던 거대한 신상의 결말처럼 자신의 제국과 권력도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단 2:31-35).
- 또한 그는 자신이 꿈의 의미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단 4:5). 제국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와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단 4:6-7). 그런 가운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 자신의 꿈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보기도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이 얼마나 큰 지 조금이나마 느끼며 두려웠을 것입니다.

3.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 유도 함께 나눠 봅시다.

- 세상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여기며, 평안의 기준이 물질적이기 때문입니다.

-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비로소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여유, 건강, 성공 등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평안할 것이라고 쉽게 단언합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돈, 명예, 권력, 안정된 환경이 있으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높은 지위, 완벽한 조건 등 물질이 풍성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평안은 일시적일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욕구로 인해 더 큰 불안이 찾아오고 자신에게 있는 소유를 지키기 위해 더 고군분투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쉽게 사라지는 가짜 평안 말고, 진짜 평안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요?

- 다니엘은 왕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죄악을 끊어버리고 옳은 일,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자신의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지속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상황과 제약을 뛰어넘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실패와 환난 속에서도 의연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